

서울경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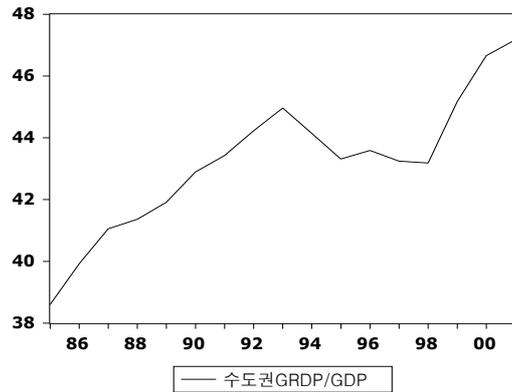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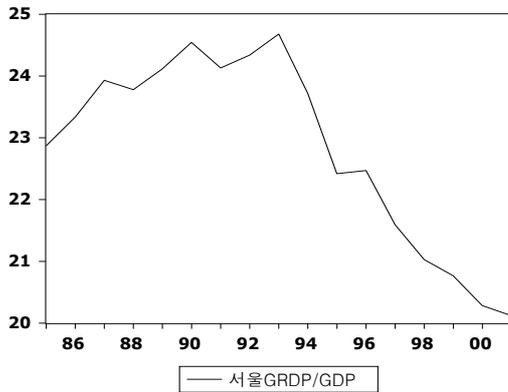
서울경제의 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필요성

- 최근 수도권이전에 관한 논의 가운데 지역 간 경제력격차의 발생원인 및 이의 해소방안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일련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론에 근거할 뿐 합리적인 경제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
 - 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는 서울경제의 국민 경제적 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수도권이전을 포함한 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서도 중요함.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위론에 근거하여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투자를 재배분하기 보다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시 경제의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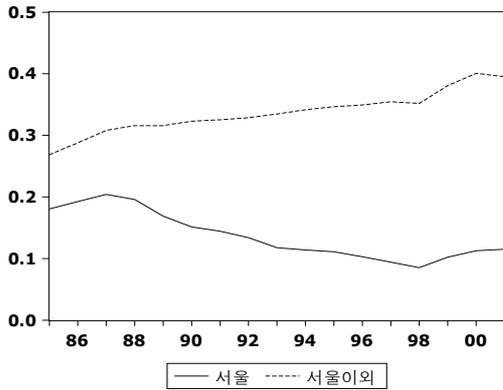
□ 서울시의 지역총생산 분석

- 서울시 지역총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2.8% 이후 증가하여 1993년 24.7%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20.1%에 달함.
- 비록 서울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감소하였으나 서울의 경제기능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제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을 보는 것이 타당함.
 - 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은 1985년의 38.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 45.0%를 보인 후 2001년에는 47.2%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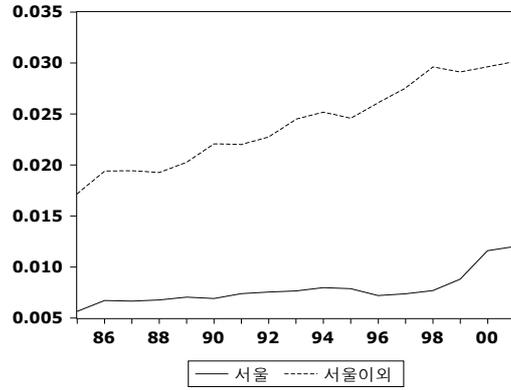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GRDP의 GDP 대비 비중 [그림 2] 수도권 GRDP의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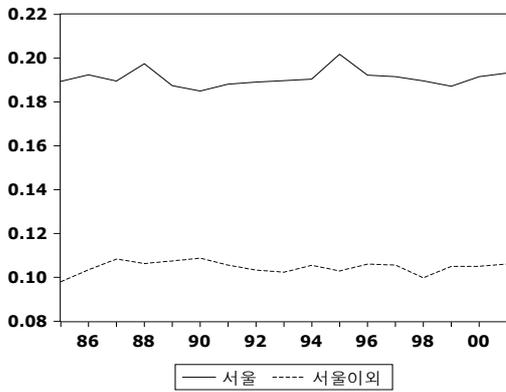
- 지역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비중은 하락, 금융부동산임대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생산비중 증가
 - 1985년~2001년 서울시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감소 추세인 반면, 서울시 이외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은 감소함.
 - 서울시의 전기가스업, 운수창고통신,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은 서울의 산업이 급격히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의미함.
 - 서울시 산업의 한 축인 금융부동산임대서비스업 비중은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이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함.
 - 서울시의 금융부동산임대서비스업 비중을 고려할 때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부동산임대서비스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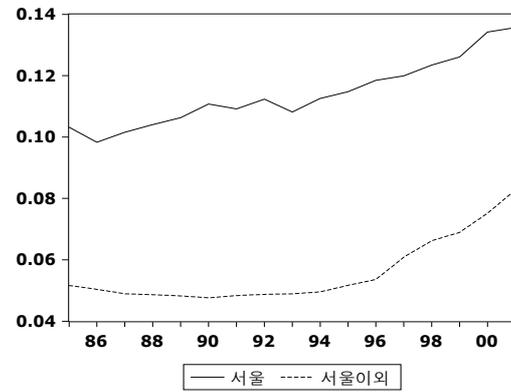
[그림 3] 제조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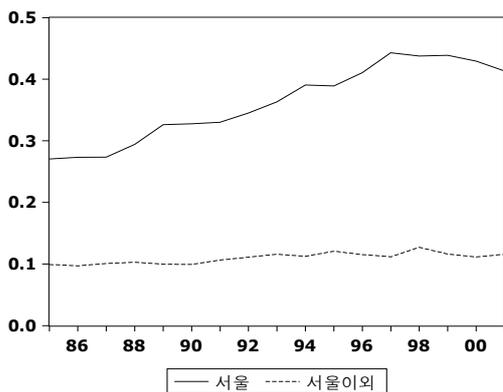
[그림 4]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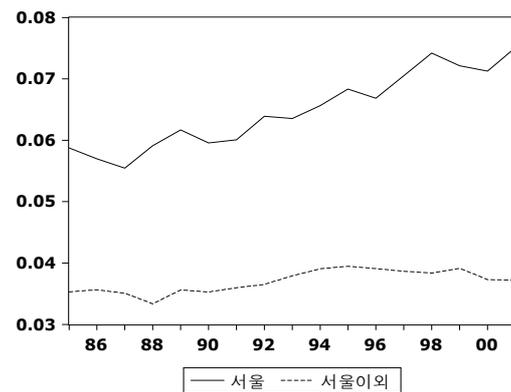
[그림 5]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그림 6] 운수창고통신업 비중



[그림 7] 금융보험부동산임대서비스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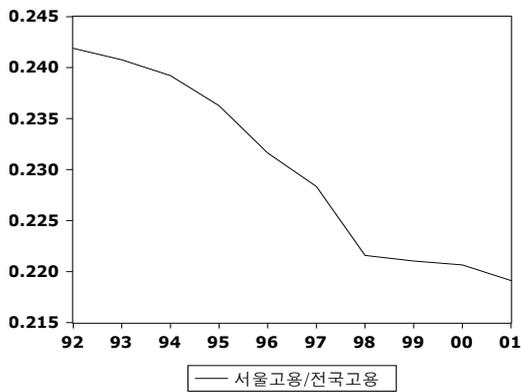


[그림 8] 사회개인서비스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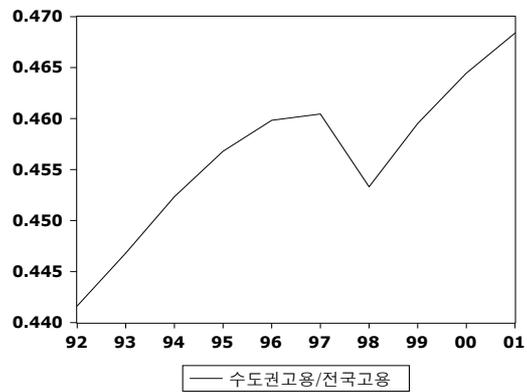
□ 서울시의 고용분석

○ 서울시 고용의 전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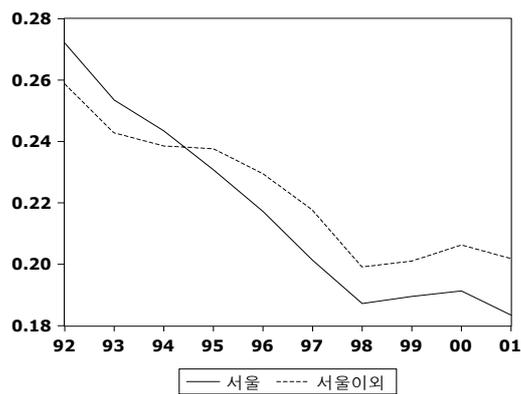
- 서울시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지역과 비교하여 그 감소 속도가 빠름.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개인서비스업은 서울의 주요 고용원으로 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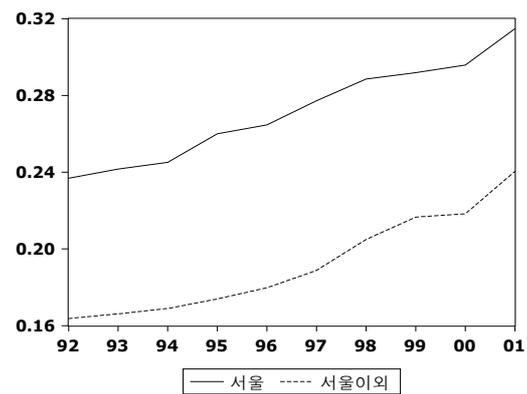
[그림 9] 서울시 고용의 비중



[그림 10] 수도권 고용의 비중



[그림 11] 제조업 고용의 비중



[그림 12] 사회개인서비스업 고용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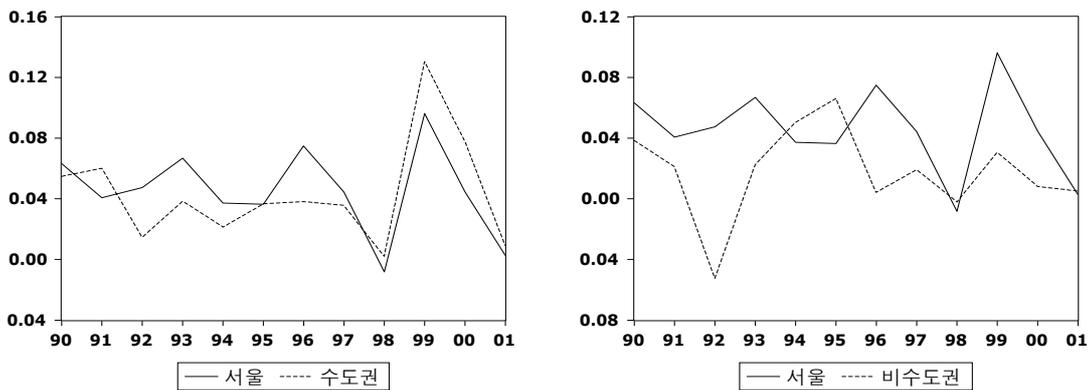
서울경제의 산업별 선도성 분석

- 서울시 특정산업 비중의 절대치는 전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서울의 특정산업이 장래 전국의 특정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동태적으로 관찰하는 선도성 분석도 중요함. 서울의 특정산업 생산이 미래 전국 생산에 대한 영향력이 30%가 넘는다면 서울시가 그 특정산업에 있어 선도성이 있다고 간주함.
- 전기가스, 금융보험부동산임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업은 서울경제가, 제조업은 경기도가 각각 국민경제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업은 비수도권이 국민경제를 선도함.
- 특히 서울의 사회개인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하고 고용흡수력이 클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선도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회개인서비스업을 특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은 서울의 고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됨.

지역별 생산성 비교 : 총요소생산성

- 일반적으로 생산량은 반드시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입요소의 양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량부분을 기술력에 의한 기여라고 간주함. 이러한 기술력에 의한 생산량부분을 총요소생산성(TFP)이라 하고 각 지역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
- 총요소생산성의 추정방법으로는, 각 지역 생산량의 증가율이 노동 및 자본투입의 증가율과 기술력의 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되므로 각 지역 생산량의 증가율에서 노동 및 자본의 증가율을 차감한 후 나머진 기술력의 증가율을 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1990년~2001년 서울의 총요소생산성 범위는 0.042~0.048, 수도권 범위는 0.039~0.047, 비수도권 범위는 0.013~0.021으로 나타나, 서울의 총요소생산성은 수도권(경기, 인천)에 비해서 우월하고 특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월등함.
- 수도권의 성장이 매우 빠른 1996년~2001년을 보면 서울의 총요소생산성의 범위는 0.041~0.044, 수도권의 범위는 0.046~0.053, 비수도권의 범위는 0.008~0.013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은 서울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월하였으나 서울의 총요소생산성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월등함.



[그림 13]서울 및 수도권의 TFP 변화추이 [그림 14]서울 및 비수도권의 TFP 변화추이

수도이전 및 균형발전논의에 대한 시사점

- 경제학적인 분석에 의해 지역간의 생산성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 생산성의 인식여부에 따라 균형발전의 개념, 지역간의 투자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서울 및 경기도의 총요소생산성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엄연히 높은 상황에서 서울의 생산요소(인구, 공공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자본시설)를 비수도권으로 인위적으로 이전시킨다면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은 자명함.

- 서울 및 수도권의 생산성이 높고 서울의 서비스업, 경기도의 제조업이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는 제조업의 선택적 강화, 비수도권의 각 지방은 그 지방의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서울이 선도성을 갖는 금융업, 서비스업, 수도권이 선도성을 갖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이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인 과밀부담금제, 공장총량제, 지방세의 중과 규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서승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hsuh@yonsei.ac.kr